

**좋은 금요일 부르는 주문, 아이부터 어른까지**  
**광주문화실험**  
 대표번호 1644-7990  
 현대미술, 문학, 사진, 음악, 공연, 미술, 디자인, 전통, 민속, 문화, 교육, 연구, 전시, 출판, 기획, 제작, 운영, 관리, 서비스, 후원, 협력, 파트너십

# 광남일보

**NEW WORLD**  
**과학에 예술을 더하라**  
 뉴월드 파크골프 062)515-9600

주간 제7803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음력 2월 18일)

<p>에스제이기술, 수산화알루미늄 첫 수출        산업폐기물 업사이클링 거쳐 1t 유럽형</p> <p>7</p>	<p>장세일 영광군수, 현안사업 추진 '동분서주'        김영록 도지사 면담·내년 국·도비 등 지원 요청</p> <p>8</p>	<p>강진 '반값 여행', 경제 활성화 견인        사전 신청 2만팀 돌파·소비액 28억원</p> <p>10</p>	<p>유럽 문예재단, 광주미술과 연계 '속도'        포르투갈 거점 AAmA 루오치 주석 교류 착수</p> <p>11</p>
---	--	---	--

## 갈라진 국론... "尹 탄핵심판 선고 하루라도 빨리"

### 역대 최장 평의... '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지쳐가는 국민들... 여야 '승복 약속'도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선고까지 최장 기록으로, 주중후반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정치권에서는 탄핵재판 여론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지만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중요성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다수의 탄핵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면서 선고가 늦어졌다고 분석한다.

현재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위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청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탄핵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을 종결했고,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변론은 18일에 이뤄질 예

정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일부 재판관의 심리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또 현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장일치 결론 도출보다는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속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현재 8명인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현재가 박 장관 변론을 진행한 이후인 19~21일께 한 총리 사건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재 장관 탄핵 변론이 18일에 잡혀 있어 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기록을

세웠다.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2일 차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차에 선고됐다.

변론종결 이후 선고까지 기간도 윤 대통령이 19일차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은 14일차, 박 전 대통령 11일차에 선고됐다.

여야는 현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은 물론, 인용되면 곧바로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돼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6일 전남 무안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본부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영안과 무안 5개 농장이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 "청정 전남 뚫렸다"...구제역 확산 비상

#### 염암 첫 발생 이어 무안 한우농장도 확인...5곳으로 늘어

염암에 이어 무안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4일 전남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이틀만에 2개 시·군 5곳 농장으로 확대되며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발생 농가 사육소 전체를 살 처분하고 지역 가축시장에 대해 잠정 폐쇄 조치를 내리는 한편 긴급 백신 접종에 나

서며 확산 차단에 즉각적으로 착수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염암군 도포면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처음 확인된 이후 이날 오전 무안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됐다.

무안 농장주는 자신이 기르는 소에서 침 흘린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해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정밀 검사 결과 소 3마리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염암 농장 4곳에 이어 무안까지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가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전남도는 무안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69마리를 모두 살처분 할 예정이다. 염암군의 경우 4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46마리 가운데 191마리가 살처분됐다. 발생 농장 4곳 중 3곳은 최초 발생 이후 추가 확인 사례여서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된 소만 살처분했다.

전남도는 구제역이 확산 추세를 보이자 백신 접종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한우농장에서 3km 이내에 있는 3만3000두의 접종률은 85%인데 모두 백신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염암 지역은 농장을 중심으로 3km 방역대에 있는 2만 9000두에 대해 접종을 모두 마쳤다.

영안과 나주 등 10km 이내에 있는 위험 지역은 40만8000두가 사육 중인데 15일 현재 71%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KIA개막전 티켓 '10배 웃돈'

#### 22일 광주 흥행기 야무극성 야구 흥행 엮고 '돈벌이 악몽'

프로야구 흥행 열기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암표상들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관련기사 2·12면

시범경기에 이어 정규시즌 개막전 티켓이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되는 등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프로야구(KBO)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예매가 지난 15일 오전 11시 구단 공식 앱과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KIA는 경기에 앞서 지난해 통합우승을 기념하는 우승반지 전달식과 12번째 우승앨범을 공개하는 제막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KIA가 개막전에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블로그, 팬카페 등에는 정규리그 일정과 예매 총정리, 개막 시리즈 시구자에 관한 글이 다수 올라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티켓링크는 사전 대비책을 마련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좌석 선점과 암표 판매를 방지하고자 2025시즌 시범경기부터 응원특별석 및 테이블석에 대해 PC 예매 서비스를 중지한다. 별도 공지 시까지 해당 좌석은 모바일로만 예매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 부정 예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문자 입력 후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주말(금토일·공휴일) 정규시즌의 일반석(K9-K8-K5-EV·외야석)은 성인 기준 1만3000원부터 2만원까지로 안내됐다. 특별석(챔피언석



1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시범경기. KIA 야구팬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테이블석·응원특별석·서프라이즈석·스카이박스 등) 요금은 성인 기준 1만9000원부터 8만5000원까지로 책정됐다.

하지만 예매 홈페이지가 열려자 순식간에 2만여석의 표가 매진됐다. 이후 자연스럽게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앱 등에는 표를 사고파는 게시글이 속속 등장했다.

한 판매자는 '3월22일 개막전 응원특별석 판매'란 글을 작성, 공식 치어리더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좌석 한자리를 17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는 '1루 EV3 515구역 13열 4연석입니다' 제목으로 1장당 10만원에 거래한다고 알렸다.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응원특별석과 EV석의 요금은 각각 1만9000원, 1만3000원이다.

중고거래 앱에는 '개막전 표 구합니다', '가력 선 제시' 등의 게시물을 올리는 이들도 상당수였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해 단속할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홈페이지 웹툰 등 교육·홍보용으로 활용 가능**

**우리의 역사, 문화, 관광을 재밌게 배운다!**

## 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꼈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화 된 애니메이션(만화)으로 제작,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지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주)스토리브릿지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QR코드로 쉽고 빠르고 즐겁게!**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나레이션된 영상을 QR코드로 만화책시판에 설치하여, 역사, 문화관광지를 찾는 수많은 국내외 내방객들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 30-0807589

• 미니버스 총력사건 이야기 (설치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주남마을)

**스토리브릿지 T 062-521-7779**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F 062-416-7080 E story01920@naver.com

QR코드를 찍으시면 유튜브를 통해 만화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